

Market Index / 31일

코스피지수 ▼ 3061.42 -8.58

코스닥지수 ▼ 956.17 -1.89

유가(WTI, 달러) ▼ 60.55 -1.01

환율(원)

1USD 100¥

살때 1151.60 팔때 1112.00

1EUR 1352.23 1CNY 180.84

살때 1299.47 팔때 163.62

중국 '알몸김치 동영상'에 식당가 울상

업소내 원산지표시 내걸지만 중국산 여부 질문 부쩍 식당 업주 A씨 "요즘 손님들 배추김치는 손도 안댄다" 국산과 가격차 3~4배... 국산 쓸 경우 가격 인상 불가피

"여기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쓰네", "배추는 국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야. 중국산 김치는 도저히 못먹겠어."

중국에서 알몸의 남성이 누런 물통 속에서 배추를 절이는가 하면 녹슨 굴삭기로 절인 배추를 옮기는 동영상도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후 제주지역 외식업체가 손님들의 중국산 김치 기피 현상에 울상을 짓고 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메뉴판이나 식당안에 써붙인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고, 김치찌개는 찾는 이들이 손꼽을 정도다.

김치찌개로 바뀌어 싶기도 하지만 원가를 생각하면 그러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유행기 때마다 매출이 출렁거리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5명 이상 손님도 받지 못해 매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도내 외식업체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70~80%정도가 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 1억 5243만달러 중 중국에서 수입된 양이 1억 5240만달러다. 수입김치는 사실상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말이다.

제주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메뉴판에 중국산 김치라고 써

진 것을 보고 배추김치는 손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버리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치가 중국집의 주요 반찬이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국내산 배추김치를 요구하는 손님이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가 워낙 커 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음식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력에 밀려 손님이 줄어들게 뻔해서다.

31일 온라인으로 배추김치 판매가격을 확인한 결과 국내산은 10kg에 5만원대가 대부분이고, 중국산은 1만원대 초반에서 2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지만 국산과는 가격차가 확연했다.

이번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불평을 맞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당도 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손이 많이 가고 비용

부담에도 그동안 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고객관리 차원에서 직접 배추김치를 담가 제공해 왔는데, 일부 손님들이 '혹시 중국산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면 당황스럽다"고 했다. "우리 식당에선 지금껏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로 손님을 안심시킬 수밖에 없다.

고객들의 이같은 의심은 일부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거나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버무린 다음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국립농산물관리지원원 제주지원이 지난해 도내 식당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선 중국산 배추나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13곳이 적발되는 등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은 돼지고기와 함께 단골품목으로 꼽힌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공공기관, 나라장터서 아스콘 구매 기관에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해 입찰하던 방식 바뀌

조달청 "수요자 중심 개선"

제주지역의 모든 기관들이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조달청은 아스콘 구매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4월 말쯤부터 도내 기관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선 아스콘이 필요한 기관마다 별도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과정을 거쳐 계약체결 후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다른지역에서 다수공급자방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규격제품과 원하

는 업체를 선택해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 체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공급이 어려웠다. 또 계약시기가 달라 같은 제품을 기관마다 다른 가격으로 공급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도내 수요기관에서는 개선을 요구해 왔다.

김경우 조달청장은 "최근 제주지역 협장간담회에서 아스콘 공급 구매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내 기관들이 매년 계약을 요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를 통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업무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41회 제주기능경기대회 열린다

4월 5~9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올해 산업융드론제어 신규 종목으로 추가

제주지역의 숙련 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가 4월 5일부터 9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제41회 기능경기대회에 통상방분 배기술, 자동차 정비, 의상디자인 등 27개 직종에 193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묶은 기량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융드론제어 직종이 새로 추가된다. 산업융드론제어는 드론의 제작부터 비행,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직종이다. 토목 측량과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높아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기능경기대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개최가 세 차례 연기되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제주도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

밀히 협조해 철저한 경기장 내 방역체계를 구축하면서 단 한명의 확진자나 의심증상자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쳤다.

올해도 감염병 상황이 이어지는만큼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경기장은 전문업체 방역과 관리위원의 자체방역으로 하루 3차례 이상 소독하고, 경기장 방문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코로나19 자가진단과 경기장 방문 예약 등을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은 전국 대도시를 활영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높아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마늘종 뽑는 들녘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마늘종을 뽑고 있다.

강희만기자

"느리지만 더 아름다운 제주 길로 안내합니다"

목적지까지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기존 내비게이션과 달리 제주 곳곳의 다양한 여행지를 경유하는 느린 길로 안내하는 역발상 내비게이션이 선보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제일기획,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느린길 내비게이션인 슬로우로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슬로우로드(Slow Road)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5월쯤 정식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는 상황에 맞춰 여행객 분산으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제주도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돼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과 내비게이션 개발을 진행해 왔다.

슬로우로드 내비게이션은 제주도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을 연결하는 50개의 테마도로를 제공한다.

문미숙기자

자활기업 화장품 '제주我美' 전국 진출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제주지역 자활기업인 (사)일하는사람들(대표 김경환)이 연구·개발한 어류발효콜라겐 화장품 '제주我美' 품 클렌저가 전국 아이러브생협 자연드림 250여개 매장에 입점한다.

(사)일하는사람들은 자체 특허 어

류발효 기술로 초저분자 어류콜라겐 추출이 가능하다는데 착안해 수년동안 자체 실험 연구를 거치고, 지난해 어류발효추출물이라는 화장품 성분 등재를 (주)대봉엘스에 제주전연물 소재연구소와 협력해 국제 INCI에 신청해 성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류발효추출물 화장품 원료를 활용

해 어류콜라겐 화장품 '제주我美'(내가 가꾸는 나의 美) 브랜드를 개발하고 어류콜라겐 함유 클렌저인 'L-프롤린 포밍클렌저 5.9' 시제품을 (예비)사회적기업 꽃타리협동조합과 콜라보로 출시했다.

올해는 어류발효콜라겐이 함유된 '제주我美' 에센스, 미스트, 푸피토닉 화장품 3종을 제주TP 생물종다양성 연구소와 함께 시제품 출시를 예정 중이다.

문미숙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진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사, 세미늘, 금갈, 당유자, 야마나스, 미나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야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이 발급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